

특별특리

정읍시, 설 명절 연휴 대비 상·하수도 비상대책 추진

정읍시가 설 명절 연휴에 대비 상·하수도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하수도 비상 대책을 수립해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물론 유사 시 긴급대응 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취·정수장을 비롯한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대한 청소·방호와 함께 소독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송·배·급수관로(총1,819km)의 누수 여부를 조기 점검, 누수관은 복구를 마쳤다.

또한, 하수도 맨홀 퇴적물 적지 여부와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방류 수질 기준 적정여부를 점검하며, 배수취약지역 순찰과 함께 배수 불량 요인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을 점검했다.

시는 이와함께 연휴기간(4일 간) 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대 일시적 물 부족 현상과 출수 불량 등 단수사고 발생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용 급수 차량과 병물(0.51) 2천병 확보함으로써 비상 시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기관장협의회 군장병에 위문품 전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부안군 기관장협의회가 25일 지역 내 전·의경과 군 장병에게 굴 50박스와 위문금을 전달했다.

권재민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하여 26개 기관장들은 군부대(105연대 1대대, 공군 8351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 등을 방문해 전·의경 및 장병들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설 명절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눴다.

권재민 부군수는 "최근 경기침체로 울 설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며 "나라와 대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전·의경과 군 장병이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김생기 정읍시장 선정

모범적 협업행정 · 지역 상생발전 기여 공로

김생기 시장이 '2017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TV조선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일보가 후원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 부문에서 수상한 김생기 시장이 지난 25일 밀레니엄서울호텔에서 선정 기념패를 받았다.

TV 조선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한 해 동안 기업과 기관의 최고 경영자 중 각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CEO를 선정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김생기 시장의 이번 수상은 고창, 부안과의 모범적인 협업행정과 창조적 행정을 기반으로 지역의 상생발전

에 기여하고 정읍발전을 앞당긴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민선 5, 6기 시장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역 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3대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R&D 사업 기반구축에 주력해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정읍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 연구기관과 연계한 첨단과학산업 단지 조성하고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인근 고창, 부안과의 협업행정

을 통해 상생 발전을 꾀함은 물론 광역행정의 모범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3개 시군 간 추진해오고 있는 관광·인사 교류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사업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사업은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 협력사업이자 납비시설 추진과 관련한 주민 민원 해결의 성공사례로도 주목받았다.

김 시장은 또 이들 지자체와 전국 최초로 '전북 서남부 도·농경제 생활권'을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나서 3년(2014~2016) 연속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연계협력사업 및 선도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나서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정읍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행복과 나후원 전북 서남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지자체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동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노력 끝에 하나 둘 결실을 거두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 부문에서 김생기 정읍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25일 밀레니엄서울호텔에서 선정 기념패를 받았다.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김제시, 구내식당서 시식회

김제시는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가금류 소비 문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및 관련업계를 돕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실시했다.

이번 시식회는 이승복 김제시장 관행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사육농가의 고통을 함께해 감소했던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닭과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수행하고자 마련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75°C 이상의 온도에서 5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아무런 해가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히고 있다.

이승복 김제시장 관행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사육농가의 고통을 함께해 감소했던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닭고기 소비촉진 앞장

삼계탕·찜닭 시식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확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부안군이 앞장서 나섰다.

25일 군청 구내식당서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읍·면장들이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준비된 삼계탕과 찜닭 약 250여 명분을 직원들에게 배식하고 시식하는 등 AI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관련업체 등의 가금류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하고 있으며 축

산농가와 음식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부안군은 AI 발생 이후 지난달부터 점심메뉴로 오리 훈제, 찜닭 등 주 2회 이상 닭·오리고기를 이용한 식단을 운영해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김중규 부안군수는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농장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한 설맞이 종합안전대책과 AI 방역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설 맞아 민생안전 종합대책 마련

비상진료체계 구축 거점방역초소 운영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승복)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설 명절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환경, 물가, 교통, 도로, 재난, 상수도, 의료분야 등 7개 분야에 각 부서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김제시를 찾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이 병·의원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병·의원 30개소, 약국 33개소, 공공보건기관 12개소 등 75개소를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으로 지정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또한 AI(조류독감)의 차단 방역을 위해 연휴기간 내 재난상황실 운영, 거점방역초소 운영, 농장소독 강화, 귀성객의 가축사육농장 방문 금지 등 주민행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1월 27일부터 김제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김제시 우수 농·특산물과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 등 홍보활동과 지평선봉사대(회장 김정화)에서는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끼도록 무료 차(茶) 나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생활민원 처리와 교통안전 대책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250여명 점심 제공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 이하 장애인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24일 김제시장애인체육관과 복지관에서 김제시장애인복지타운 이용자 250여명과 함께 풍성한 설 명절 잔치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오전 공연관람으로 아이엘컴퍼니(대표 방관철) 이벤트에서 무료 봉사로 가수 및 악기공연이 진행되었고 무료중식 후 16명의 웃음이 토너먼트 경기를 통해 설날의 민속놀이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무료중식은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와 의무경찰어머니회(회장 박옥진)에서 손수 마련한 설렁탕, 팀숙육, 잡채, 전, 떡, 과일 등을 푸짐하게 준비하여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였고 떡, 과일, 전, 김치 등을 포장하여 식사 후 이용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명절의 의미를 뜻깊게 하고 더욱 행사를 풍성하게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myeongju.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and gift se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